여자배구 이재영·다영 쌍둥이의 '추락'

학교 폭력 논란… 국가대표 자격 무기한 박탈
배구협 "강력한 처벌 없이는 재발 방지 어려워"

중학교 시절 학교 폭력(학폭)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의 '쌍둥이 자매' 이재영·이다영(이상 25)의 국가대표 자격이 무기한 박탈됐다.

대한민국배구협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전문체육, 생활체육 및 국가대표 운영단체로서 학교폭력 사태로 인해 많은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재영과 이다영을 2021 발리볼네이션스리그, 도쿄올림픽 등 향후 국가대표 선수 선발 대상에서 무기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전주 중산초등학교, 경해여중, 선명여고에서 내내 함께 뛴 뒤 올 시즌 흥국생명에서 다시 뭉친 레프트 이재영과 세터 이다영 자매는 2019년 국제배구연맹(FIVB) 발리볼네이션스리그와 도쿄올림픽 예선,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대표팀의 기둥으로 활약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배구협회는 국가대표팀의 주축에다 도쿄올림픽 본선 진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두 선수의 징계를 놓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전날 실무 회의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회의를 개최했다.

협회는 논의 결과,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주력 선수인 둘을 제외할 경우 전력 손실이 크지만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부적격한 행동에 대해 일벌백계한다'는 차원에서 중징계를 결정했다.

협회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학교폭력 사건들에 대해 강력한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 선발 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올림픽 정신을 존중하고 준수하며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국가대표팀에 임할 수 있는 지도자 및 선수만을 선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한국배구연맹(KOVO)과 함께 학교폭력 재발 방지 및 근절을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며 폭력 없는 스포츠 문화 조성에도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국가대표에 매번 선발될 정도로 출중한 기량을 갖췄던 쌍둥이 자매는 이번 학교폭력 사건으로 한순간에 추락했다. 소속 구단인 흥국생명은 앞서 이재영·이다영 자매에게 '무기한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고, 방송가도 즉각 조치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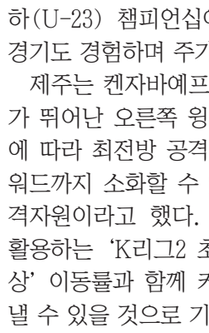
두 선수가 지난해 출연했던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 E채널 '노는 언니', 채널A '아이콘택트' 등 예능 프로그램 다시보기와 클립 영상에서 삭제됐다. 기아자동차 광고 영상 역시 내려졌다.

이재영·다영 자매는 이제 선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코트에 복귀하더라도 태극마크를 다시 달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대표팀에서 두 선수의 비중이 워낙 크기에 도쿄올림픽을 앞둔 '라바리니호'에도대형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축구선수 오태환, 교편 잡는다

현역 최초 임용시험 합격
제주제일중·오현고 졸업



전주시민축구단 소속 오태환(사진) 선수가 교편을 잡는다.

15일 전주시민축구단에 따르면 오 선수는 최근 전북도 교육청이 실시한 '2021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현역 축구선수가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축구단은 설명했다.

2017년 전주시민축구단에 입단한 그는 제주서초, 제주제일중, 오현고, 전주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전국체육대회와 정규 리그 등 총 74경기에 출전해 32골을 기록했다.

특히 제98회,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목에 걸어 전주시민축구단 공격수로서 실력을 과시했다.

오 선수는 훈련을 통해 기량을 쌓는 동시에 대학원에 진학했다.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다.

오 선수는 동료 선수들과 감독 등의 배려를 받아 축구와 학업을 병행했고 결국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그는 "어렸을 적 꿈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는데 축구 선수와 교사 두 가지를 모두 이루게 돼 너무 기쁘다"며 "학업과 축구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분께 감사하고 축구선수로 올해 시즌 때도 열심히 뛰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페굴라의 집중력 있는 리시브 15일 호주 멜버른의 멜버른 파크에서 열린 대회 8일째 여자 단식 제시카 페굴라(61위)와 엘리나 스비톨리나(5위)의 16강전에서 페굴라가 상대 공격을 받아내고 있다. 이날 한국계 테니스 선수 페굴라는 스비톨리나를 2-1(6-4 3-6 6-3)로 격파하며 8강에 진출했다. 페굴라는 이번 대회 우승 후보들을 잇달아 제압하며 메이저 대회 단식 최고 성적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 연합뉴스

버거, AT&T 역전 우승 PGA투어 통산 4승 달성

한국 유일 강성훈 공동 63위

대니얼 버거(미국)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AT&T 페블비치 프로암(총상금 780만 달러) 우승을 차지하며 투어 통산 4승을 거뒀다.

버거는 15일(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페블비치 골프 링크스(파72·7051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이글 2개와 버디 4개, 보기 1개를 묶어 7언더파 65타를 쳤다.

최종합계 18언더파 270타를 써낸 버거는 2위 매버릭 맥닐리(미국·16언더파 272타)를 두 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우승 상금은 140만4000달러(약 15억5000만 원)다.

이번 우승에 힘입어 그는 페덱스컵 랭킹 63위에서 10위(782점)로 껑충 뛰었고, 세계랭킹도 15위에서 13위로 소폭 상승했다.

맥닐리는 마지막 18번 홀(파5) 버디로 버거와 공동 선두를 이룬 채 먼저 경기를 마쳤으나 이어 18번 홀에서 경기한 버거가 침착하게 투온에 성공한 뒤 9m 넘는 이글 퍼트에 성공하며 쐐기를 박았다.

한국 선수 중 유일하게 컷을 통과한 강성훈(34)은 버디 2개와 보기 3개로 한 타를 잃어 공동 63위(2오버파 290타)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제주Utd, '우즈벡 신성' 켄자바예프 영입

아시아쿼터 활약 기대감↑
스피드 뛰어난 오른쪽 윙어

제주유나이티드(이하 제주)가 이번엔 '우즈베키스탄 신성' 이슬롬 켄자바예프(22·사진)를 영입했다. 2021시즌 K리그1 개막을 앞두고 아시아쿼터로 활약할 선수를 모색했던 제주는 많은 후보를 신중하게 검토한 끝에 켄자바예프를 선택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켄자바예프는 우즈베키스탄 1부 리그 나사프 카르시 유스 출신으로 2017년 만 18세의 나이에 1군으로 승격해 지난해까지 4시즌 동안 경력을 쌓았다. 리그와 각종 컵대회 포함 86경기에 출전해 9골 4도움을 기록했다. 2018년 AFC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 전경기 출장을 비롯해 지난해 1월 태국에서 열린 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에 참가해 국제경기도 경험하며 주가를 높였다.

제주는 켄자바예프에 대해 스피드가 뛰어난 오른쪽 윙어로 전술 변화에 따라 최전방 공격수와 왼쪽 윙포워드까지 소화할 수 있는 전방위 공격자원이라고 했다. 정교한 왼발을 활용하는 'K리그2 초대 영플레이어상' 이동률과 함께 커다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켄자바예프는 "제주에서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싶다. 뛰어난 선수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그들과 빨리 손발을 맞추고 싶다"는 입단 소감을 전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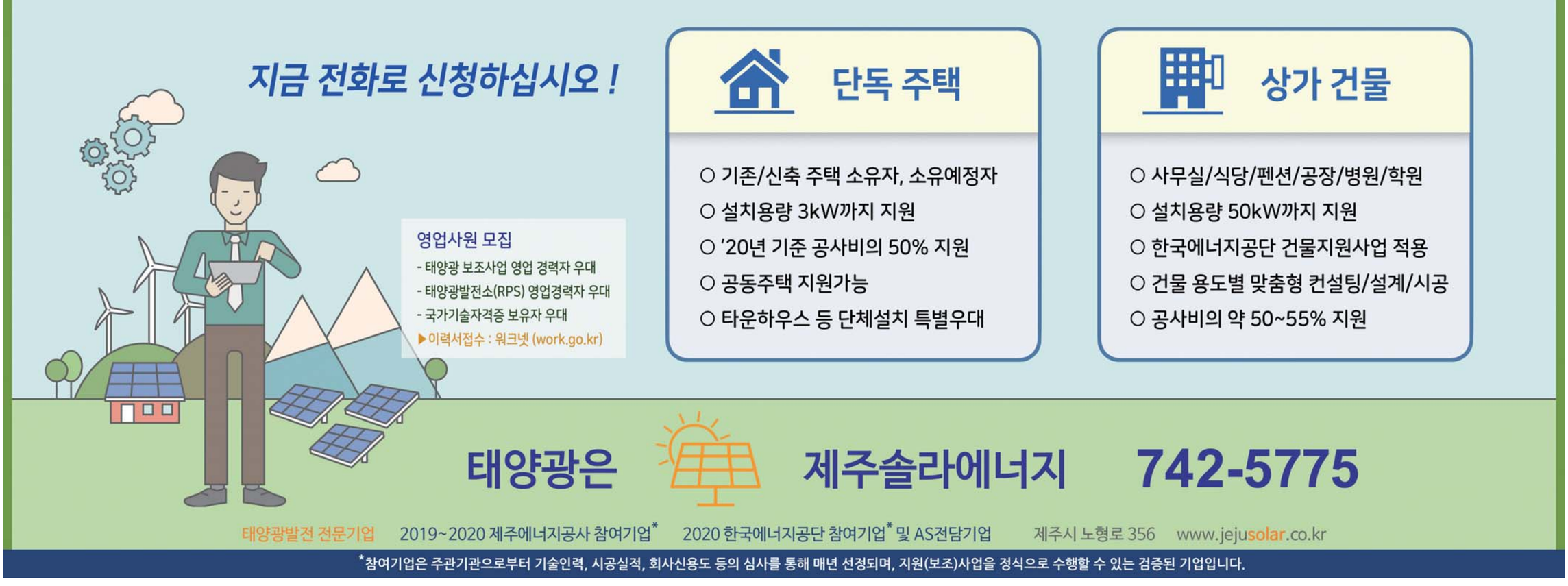
PBA 챔피언십 출전선수 확정

올 시즌 프로당구 PBA 투어를 결산하는 왕중왕전인 'PBA 월드챔피언십'의 남녀 출전자가 확정됐다.

PBA 월드챔피언십은 25일부터 3월 6일까지 열흘간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진행된다.

월드챔피언십은 역대 최대 규모인 총상금 5억5000만원이 걸린 대형 이벤트다. 타이틀 스폰서는 SK렌터카가 결정됐다.

PBA에서는 직전대회인 5차 투어에서 우승하며 상금 랭킹 1위를 차지한 '왼손 당구 천재' 필리포스 카시도코스타스(TS·JDX)를 비롯해 프레데리크 쿠드롱(웰컴저축은행), 강민구(블루원리조트), 서현민(웰컴저축은행), 하비에르 팔라존, 오성욱(신한금융투자) 등이 출전한다.

LPBA에서는 이번 시즌에만 3연속 우승으로 랭킹 1위를 차지한 이미래가 출전자 명단 최상단에 이름을 올렸다. 매번 이미래에게 막혀 우승컵을 들어 올리지 못한 김가영도 이번 월드챔피언십에서 명예 회복에 도전한다.

또한 김예은, 김세연도 월드챔피언십에 출전해 우승컵을 노린다. 이에 반해 직전 대회에서 프로 데뷔전을 치른 '캄보디아 당구 여제' 스롱 피아비와 '당구여신' 차유람, 이번 시즌 3차전부터 참가했던 김민아는 아쉽게 진입에 실패했다. 이번 대회는 PBA 우승상금 3억원(총상금 4억원), LPBA 우승상금 1억원(총상금 1억5000만원원)이 걸려있다. 연합뉴스